<2010년 11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> 주편

1. 가르쳐 주어라. 한 번이 아니다. 수십 번씩 가르쳐 주어라. 그 일을 행하여 그 일이 끝날 때까지다.

2. 사물도 사람도 그때는 존재한다.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고 가다가 멈춘다. 그러므로 계속 관리다. 수십 번, 수백 번, 수천 번, 존재할 때까지다. 돌을 세워 놓으면 그때는 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넘어진다. 사람도 그러하다. 계속 관리다.

3. 열매는 끝에 연다.

4. 끝까지 하는 자,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열매를 먹는다. 신비한 세계에 도착하게 된다.